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1)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1년 3월 29일)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내 식료품 물가상승 현황

미국 농무부에서는 2020년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가정 내 소비 식료품(food-at-home)의 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2021년에는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9-2020년의 식료품 물가상승은 약 3.5%로 이는 평균 물가상승률에 비해 75% 높아진 수치이다. 미국 내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은 20년간 매년 2%씩 증가해 온 반면, 2019년 대비 2020년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악천후와 작황 부진이 발생과, 높은 연료 가격과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발생한 2011년의 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의 대부분은 2020년에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다. 신선 과일만이 주요 식품군 중 유일하게 가격 하락(-0.8%)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인도, 대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과일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미국산 사과, 포도, 체리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자가격리 조치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상할 수 있는 신선식품의 소비를 줄였다. 유지류는 다른 식품군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10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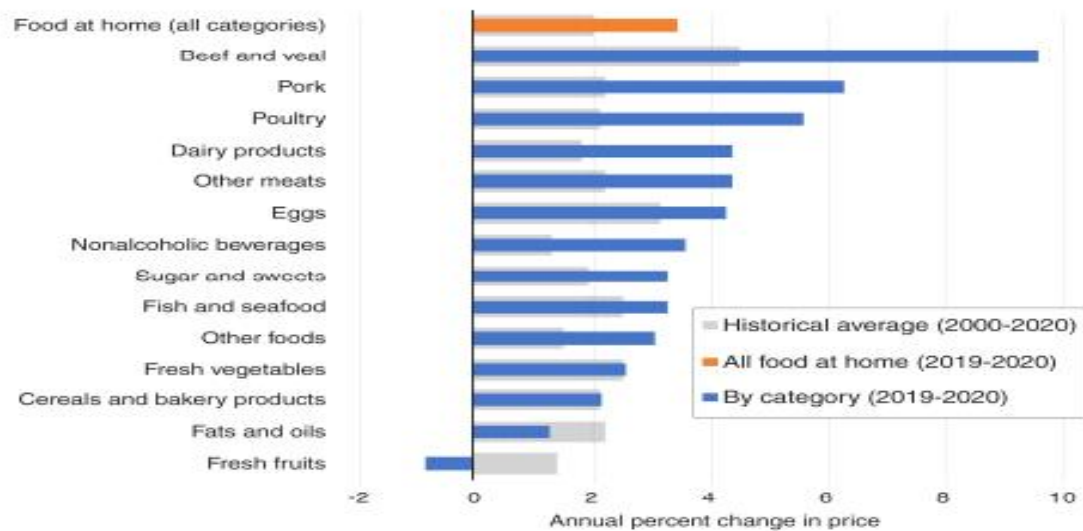
률(+0.8%)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두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튀김용 기름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육류는 전체 식품군 중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다. 소고기는 9.6%, 돼지고기는 6.3%, 닭고기는 5.6%, 기타 육류는 4.4%의 물가가 상승하였다. 20년간 평균적으로 소고기 4.4%, 돼지고기 2.2%, 닭고기 2.1%, 기타 육류 2.2%의 물가상승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며, 2014년에 가뭄과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하여 육류의 소매가격이 상승한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육가공 공장들이 조업을 중지해 육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봉쇄조치로 인한 식당, 학교 등의 영업 정지가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육류뿐 아니라, 유제품, 계란, 비알코올 음료 등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4%씩 상승하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월에서 5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상품도 있으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품도 있었다. 소고기 가격의 경우에는 4~5월까지 10.9% 정도 상승하였지만, 7월 이후로는 조금씩 하락하였다. 하지만 상승 속도에 비해 하락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가격은 8~9월에는 1.4% 하락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0.9% 상승하여,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다.

■ 식품군별 물가상승률 ■

Food-at-home prices increased in all major food categories, except fresh fruits, in 2020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data.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내 식료품 물가상승 현황」,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12. 2021년 3월 29일자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 “Retail Food Price Inflation in 2020 Outpaced Historical Average by 75 Percent” (2021.3.1.)(<https://www.ers.usda.gov/>)

2. (2021년 4월 1일) 美 낙농업계,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시행 중인 푸드박스 프로그램에 유제품 구매 확대 촉구 - 비용 효율이 높고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영양공급 도모

미국 낙농업계가 연방정부에 유제품 구매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낙농가연합(NMPF)은 최근 진행된 농무부(USDA) 청문회를 통해, 차기 푸드박스 프로그램 관리부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비용·효율이 좋은 유제품을 효율적으로 구매 분배해줄 것을 요청했다.

푸드박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정부가 직접 구매한 농산물로 일종의 꾸러미를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나눠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약 1억 5천만 명의 수혜계층이 우유 및 유제품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점검 및 개편을 위해 관련 업계에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에 NMPF는 우유, 치즈, 요거트 등 많은 유제품은 식단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식품으로, 우유만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단일 식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푸드박스에 우유 및 유제품을 추가로 구매해 공급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수혜자들에게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 절감은 물론 풍부한 영양 공급을 위해 유제품 구매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美 낙농업계, 푸드박스 프로그램에 유제품 구매 확대 촉구 - 비용 효율이 높고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영양공급 도모',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1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3월 29일자

3. (2021년 4월 2일) 美 유제품 수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외식 횟수 증가, 체육시설 운영 재개 등으로 유제품 수요 늘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전역 11만개 식당이 문을 닫고 250만 명의 식품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격적인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으로 외식 횟수가 늘어나면서 식품 서비스업의 유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무부(USDA)의 유제품 시장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식품 서비스업의 치즈 및 버터 구매가 크게 늘었고, 특히 버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또한 체육시설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단백질 보충 음료에 많이 사용되는 유청 단백질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도 대면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우유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업계전문가는 식품서비스업의 수요 증가로 이탈리아산 치즈 판매는 증가할 것

으로 보이거나 외식 횡수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슬라이스 치즈 또는 체다 치즈 등 소포장 제품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美 유제품 수요,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외식 횡수 증가, 체육시설 운영 재개 등으로 유제품 수요 늘어’,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2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3월 30일자

3. (2021년 4월 20일) 美 낙농업계, 정부의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발표 환영 - USDA, 4천억 원 규모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시행 발표로 낙농업계 환영

최근 미국 농무부(USDA)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온 푸드박스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4억 달러(약 4,480억 원) 규모의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낙농업계는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전미낙농식품협회(IDFA)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된 영양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자선 단체 등과 꾸준히 협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유제품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미국낙농가연합(NMPF)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낙농가는 물론 식량 부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가정에 유제품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모든 산업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정책동향] 美 낙농업계, 정부의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발표 환영 - USDA, 4천억원 규모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 시행 발표로 낙농업계 환영’,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20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4월 14일자

4. (2021년 4월 26일) 미국 농무부(USDA),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 시스템 회복을 위해 자금 투입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 시스템 회복을 위해 3억 3,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재정적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지원하고 식품 및 원료 공급 시스템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지원 대상이 되는 작물 및 상품은 특용작물(specialty plants)과 목화이며, 추가로 새로운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New Dairy Donation Program)을 발표하

였다.

【 미국 농무부의 지원정책(2021.4.13. 발표) 】

프로그램명	대상	목적	금액
Specialty Crop Block Grant Program (SCBGP)	특용작물 생산자	- 특용작물 생산자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 - 기존의 시장 확대	1억 6,990만 달러
Gus Schumacher Nutrition Incentive Program (GusNIP)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채소 및 과일 구매 활성화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농가, 신규농가 등 지원	7,500만 달러
Pandemic Assistance for Cotton Users (PACU)	미국산 면을 원료로 이용하는 가공업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 생산자 지원	8,000만 달러
Diary Donation Program	우유 생산자 및 유제품 가공업자, 비영리 단체	- 우유 및 유제품의 폐기 방지 - 저소득층 지원	미정

특용작물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SCBGP)이 투자되었다. 7,290만 달러는 연간 Farm Bill에서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9,700만 달러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의회 자금에서 지원받는다. 특용작물(Specialty Crops)이란 과일, 채소, 견과류, 건조과일, 원예 작물, 화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식용, 의료용,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작물들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이 과일과 채소를 더욱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시작한다. 농무부의 식량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에서는 7,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저소득층 공동체에 식량 및 영양 지원을 하고자 한다. GusCRR(Covid Relief and Response)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입된 예산이 중소농가, 신규 진입 농가, 전역자가 운영하는 농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산 목화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 내에서 면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Pandemic Assistance for Cotton Users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목화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게 목화 1파운드당 0.06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미국산 목화 사용량 평균이 기준이 되며, 코로나19로부터의 피해 극복을 위해 2021년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유제품 기부 프로그램(Diary Donation Program)은 유제품이 필요한 비영리 단체에 유제품을 공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유제품 가공업체에서 공급받은 유제품을 비영리 단체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봄철에는 우유가 초과 생산(surplus production)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제품 기부 활동을 촉진하여, 신선 우유가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도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업 시스템 회복을 위한 자금 투입’,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16. 2021년 4월 26일자

- 원문출처: USDA, “ “USDA Invests More Than \$330 Million in Specialty Crops Grants, Incentives to Purchase Fruits and Vegetables, and Help for Cotton Producers” (2021.4.13.)(<https://www.usda.gov>)

II. 유럽

[EU]

1. (2021년 4월 21일) EU낙농, 안정세 유지할 듯 - 코로나19 완화로 유제품 수요 증가, 시유 소비는 감소 예상

금년 초 유럽연합 27개국(EU27)의 사육두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유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단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산유량 증가 및 양호한 날씨에 따른 목초지 성장으로 금년 원유생산량이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반기 코로나19 봉쇄령 완화 조치로 식당 영업 재개에 따른 식품 서비스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버터와 치즈 소비량이 1% 늘어나고, 수출 수요 증가로 수출량도 4% 증가할 전망이다. 탈지분유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로 생산량은 3.5%, 수출량은 6% 늘고, 전지분유 생산량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버터와 치즈 소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재택근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카페나 식당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어, 우유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EU낙농, 안정세 유지할 듯 - 코로나19 완화로 유제품 수요 증가, 시유 소비는 감소 예상’,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21일자

- 원문출처: ahdb.org.uk, 4월 14일자

[러시아]

1. (2021년 4월 22일) 러시아 수출업자, 코로나 이후 생긴 수출세 등 세금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작물 밀 판매에 베팅

러시아 밀 수출업자들은 러시아가 국내 식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곡물 출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공격적인 입찰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국내 곡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6월 2일부터 밀 수출세를 부과한다.

이는 매주 변경되며 톤당 50유로(약 60달러)의 현행 고정세를 대체할 것이다. 거대 밀 수입국 이집트의 국영 구매자는 8월 신작물 출하를 위해 4월 6일 입찰에서 29만 톤의 러시아 밀을 구입했는데, 러시아 밀은 유럽연합과 같은 경쟁국보다 가격이 저렴했다.

입찰에 참여한 무역업자는 “카지노 같다. 우리는 러시아 수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수입이 타격을 입은 3월에 7.6%에 달했던 식량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량 가격 상승은 UN 식량농업기구가 내놓은 기준 지수가 3월에 1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201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집트는 터키 다음으로 러시아 밀을 많이 구입하는 나라다.

한 무역업자는 “러시아 수출업자들은 수출에 제동을 걸려는 러시아 정부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판매를 위해 새로운 곡물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순수한 도박이다. 아무도 세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기업들은 기꺼이 그들의 목을 내밀고 위험을 감수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곡물 수출 연합 회장 Eduard Zernin은 “여름 선적을 위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 무역업자들은 현재 50유로의 수출세가 새 시즌에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1달러 = 0.8317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ussian exporters bet on new crop wheat sales despite tax risks(러시아 수출업자들은 세금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작물 밀 판매에 베팅),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4월 22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912/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Ⅲ. 오세아니아

[호주]

1. (2021년 3월 30일) 호주, 목장 셀프 가이드 투어 활성화 나서 - 에어비앤비와 협력...낙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마련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목장스테이 가 여행객들의 여행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물론 낙농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DA)는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협력해 주요 낙농업 지역에서 여행객이 직접 운전해 진행하는 셀프 가이드 투어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으로, 퀸즐랜드를 거쳐 태즈메이니아 남부지역까지 12개의 코스가 마련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호주 낙농산업을 선보이고 목장에 머무르며 현지에서 생산된 치즈와 요거트를 즐기며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선사하고 여행 욕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가들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목장의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호스트로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호주, 목장 셀프 가이드 투어 활성화 나서 - 에어비앤비와 협력...낙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 마련’, 「글로벌 낙농 뉴스」 2021년 3월 30일자

- 원문출처: dairynewsaustralia.com.au, 3월 26일자

IV. 아시아

[중국]

1. (2021년 4월 21일) 북·중, 코로나로 닫힌 국경 열 듯 - 북 식량난·생필품 부족 가중, 중 외교부 “교류 전개 필요”, 부분적 개방 이뤄질 가능성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닫혀 있던 북·중 국경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 간 교역이 완전히 정상화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북한에 필요 물자가 공급되는 수준의 부분적 개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북한과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교역 재개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앞서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서는 한글로 ‘단둥·서포’ (평양 외곽 지역)라는 글자가 적힌 화물열차가 정차돼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 가운데 일부 열차가 이미 지난 17일 옥수수 300t을 싣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열차 운행이 확인되지는 않았고, 5월 초쯤 본격 재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중 국경의 움직임이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상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사정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국경을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다. 그 결과 식량난과 생필품부족현상이 가중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국경 개방 필요성은 북한 측에 더 절실하다. 그동안 거의 끊기다시피 했던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이 지난달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3월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297만 8,000달러(약 145억 원)로, 2월 3,000달러(약 355만 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농사철을 맞아 비료 등을 대거 들여갔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화물열차 운행이 일시적으로 재개될 수 있겠지만 전면적인 교역 재개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북·중, 코로나로 닫힌 국경 열 듯’, 2021년 4월 21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news.khmnok.kr/news/khmn_at_view.html?nid=202104213025&code=9004#sid=897c5383015bld7342cc959

[싱가포르]

1. (2021년 4월 14일) 싱가포르,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로 식료품 배달 로봇 보급 -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우유 등 식료품 구입,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식료품 배달을 위한 로봇이 개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로봇 개발업체인 오토쏘 디지털(OATSAW Digital)은 700가구를 대상으로 로봇 두 대를 보급해 앞으로 1년간 배달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로봇은 센서와 3D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으며, 최대 20kg까지 운반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우유 등 식료품을 구입 후, 지정된 배달장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로봇이 픽업 지점에 가까워지면 미리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비접촉·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관리를 위해 매번 배달이 완료된 후 자외선 소독이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기간 동안 업체관계자들이 로봇과 함께 동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로봇은 별도로 식료품 구매를 하러 갈 필요가 없고 무거운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싱가포르,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로 식료품 배달 로봇 보급 -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우유 등 식료품 구입,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 가능’,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14일자
- 원문출처: reuters.com, 4월 12일자

V. 글로벌

1. (2021년 3월 29일)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19 등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위험요인 전망

<개요>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 이내 전 세계에 발생할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감염성 질환,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실패, 대량 살상무기, 생물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주요 출처: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24.; 연합뉴스, 10년 내 가장 재앙적인 글로벌 위험 요인 1위 전염병, 2021.1.24.)

<주요 내용>

WEF는 2021년 발간한 ‘The Global Risks’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은 위기에 관해 소개하였다. Global Risks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여러 국가나 산업에 심각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건 또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한 인적·경제적 비용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결속력과 글로벌 협력을 더욱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확대, 급격한 시장의 변화는 전 세계 인구 상당수에 심각한 결과와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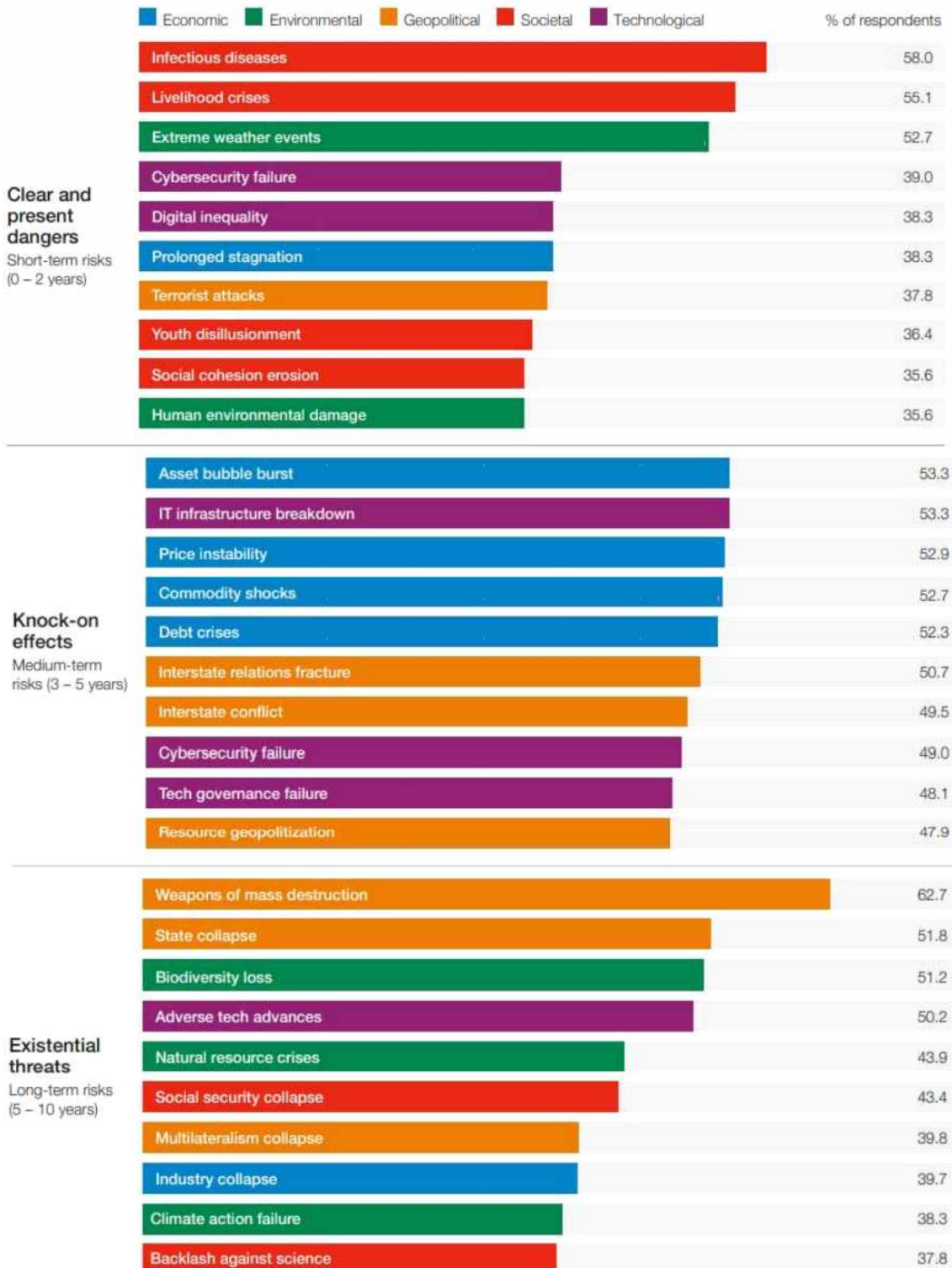
단기적(향후 2년 이내)으로는 감염성 질환, 세계 위기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심각한 글로벌 위기로 조사되었다. 향후 3-5년 사이에는 경제적인 요인인 자산 버블 붕괴가, 장기적(향후 5-10년 사이)으로는 지정학적 요인인 대량 살상무기 및 국가 위기가 위험하다고 답변하였다.

WEF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위험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요소와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을 2가지로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향력이 큰 위험요인) 감염성 질환의 영향력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대량 살상무기, 생물다양성 감소, 천연자원 위기 등을 제시하였다.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 극심한 기상이변이 가장 발생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 그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간 주도의 환경 피해, 감염성 질환, 생물다양성 감소, 디지털 파워 집중, 디지털 불평등, 사이버 보안 실패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불안, 정치적 분열, 지정학적 긴장 등은 사이버 공격, 대량 살상무기, 기후변화 등과 같은 주요 위험요인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구간별로 살펴본 글로벌 위험요소 설문조사 결과 ■



출처: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24.

<Top Global Risks by Impact>



출처: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24.

<Top Global Risks by Likelihood>



출처: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24.

▣ 향후 10년간 영향을 미칠 글로벌 위험요소 상위 10대 분야 ▣

영향력(Top Risks by impact)	순위	발생 가능성(Top Risks by likelihood)
감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	1	극단적인 기상 현상(Extreme Weather events)
기후변화 대응 실패(climate action failure)	2	기후변화 대응 실패(climate action failure)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3	인간주도 환경 피해(Human environmental damage)
생물다양성 감소(Biodiversity loss)	4	감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
천연자원 위기(Natural resources crises)	5	생물다양성 감소(Biodiversity loss)
인간주도 환경 피해(Human environmental damage)	6	디지털 파워 집중(Digital power concentration)
생계 위기(Livelihood crises)	7	디지털 불평등(Digital inequality)
극단적인 기후 현상(Extreme Weather events)	8	국가 간 관계 균열(Interstate relations fracture)
부채 위기(Debt crises)	9	사이버보안 실패(Cybersecurity failure)
IT 인프라 붕괴(IT infrastructure breakdown)	10	생계 위기(Livelihood crises)

출처: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2021.1.24.; 연합뉴스, 10년 내 가장 제약적인 글로벌 위험요인 1위 전염병, 2021.1.24.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경제에서 양극화된 산업 환경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글로벌 위기를 제시함으로써 인류의 단결과 글로벌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제안으로서 발간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충격(potential shock)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① Accidental war(우발적인 전쟁), ② Anarchic uprising(무정부주의 봉기), ③ Brain-machine interface exploited(뇌-기계 인터페이스 악용), ④ Collapse of an established democracy(확립된 민주주의 파괴), ⑤ Geomagnetic disruption(지구 자기장 파괴), ⑥ Gene editing for human enhancement(인간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편집), ⑦ Neurochemical control(신경 화학 제어), ⑧ Permafrost melt release ancient microorganisms(영구 동토층 용해 고대 미생물 방출), ⑨ Deployment of small-scale nuclear weapons(소규모 핵무기 배치) 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슈 브리프] 세계경제포럼(WEF),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위험요인 전망」,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12. 2021년 3월 29일자

- 원문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 “세계경제포럼(WEF), 향후 10년 이내 발생 가능한 글로벌 위험요인 전망”(BioNwatch(BioN+Issue+Watch): 21-16, 2021.3.9.

2. (2021년 4월 12일) 금년 영양 트렌드 Top 3 - 美 농업생명연구소 발표. 맞춤형 영양섭취
 홈쿡, 투명한 공급망, 고품질 및 면역강화 식품 수요 증가 등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식품 소비는 물론 영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미국 텍사스 주립대 농업생명연구소(Texas A&M Agrilife)가 금년 영양 트렌드 3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맞춤형 영양 섭취를 위한 홈쿡 증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칼로리나 당분 함량이 낮은 좀 더 건강한 식재료를 선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보다는 개개인의 맞춤형 식단으로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늘어나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둘째, 투명한 식품 공급망과 고품질 식품에 대한 관심 고조 영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이 섭취하는 식음료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투명한 식품 공급망은 물론 식품의 영양성분과 안정성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높아질 전망이다.

셋째, 면역강화 식품 수요 증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자들은 건강한 면역 체계에서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우유 등 면역강화를 위한 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금년 영양 트렌드 Top 3 美 농업생명연구소 발표 - 맞춤형 영양섭취 홈쿡, 투명한 공급망, 고품질 및 면역강화 식품 수요 증가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12일자
- 원문출처: thecattlesite.com, 4월 7일자

3. (2021년 4월 16일) 2020년 세계 유제품 교역량 2.8% 증가 - 치즈, 전지분유, 유청 분말 교역량 증가...버터 및 탈지분유는 감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세계 유제품 교역량은 2019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유제품무역연합(Eurolai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버터 및 탈지분유 교역량은 감소한 반면, 치즈 전지분유 및 유청 분말 교역량이 늘어나며 총 유제품 교역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와 영국이 원유환산량 기준 총 교역량의 31%를 차지하며 최대 유제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고, 뉴질랜드와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2019년 대비 유청 분말 수요가 급증하며 최대 유제품 수입국의 자리를 지켰다.

품목별로는 치즈의 경우 EU와 영국의 수출량이 7% 증가하며, 총 교역량이 2% 증가한 반면, 버터 교역량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유는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중국이 탈지 및 전지분유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시장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 유제품 교역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교역동향] 2020년 세계 유제품 교역량 2.8% 증가 - 치즈, 전지분유, 유청 분말 교역량 증가...버터 및 탈지분유는 감소’,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4월 16일자
- 원문출처: ahdb.org.uk, 4월 13일자